

'무대위의 인문학 에세이' 희노애락 콘서트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지원 확대

문화공간 이름,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위해 무용·재즈·국악·클래식 공연

문화공간 이름에서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무대위의 인문학 에세이' 희노애락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18년 6월에 개관한 문화공간 이름은 꿈을 이루는 곳, 꿈이 이뤄지는 곳 '을 기업이념으로 두고 있는 많은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첫 개관연주회(유영옥 피아노 리사이틀)를 시작으로 국내·외 수준급 연주자들의 기획공연, 가족동반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을 비롯하여 지역 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 연주,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 등 지역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장 특성화 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도에도 민간공연장 활성화 사업과 전북문화재단의 민간문화시설기획프로그램에 2년째 선정됐다.



문화공간 이름에서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무대위의 인문학 에세이' 희노애락 콘서트를 선보인다.

선사할 예정이다. 부채춤은 양손에 꽃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곱게 단아한 춤을 추는 채로 큰 대형의 꽃을 만드는 한국대표 부채춤 명작무로 지정 받은 작품이며, 창작무용은 현장에서 실명 및 진행될 예정이며 청명심수는 맑고 밝은 마음을 하늘에서 받음으로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잔잔한 호숫가에서 여인의 마음을 비추는 작품이다. 흥화영 단장은 현재 두(頭:Do)Dance 무용단 대표이며 제2회 김백봉춤 보존회 콩글 대상 제25회 동아무용콩글 입

상, 제32회 신인무용콩글 수석상을 받은 바 있다.

8월 19일 콘서트는 재즈 음악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공연 관람 및 감상을 발표하는 등 강연과 살롱 문화, 그리고 사랑방 문화를 접목해 진행되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재즈보컬리스트 RUST의 ▲Viage Milagrosa ▲NATAL ▲Sem Compromissio ▲A RA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10월 21일 콘서트는 소리꾼에게 있어서 소리, 삶 그리고 소리꾼과 청중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악에 담겨있는 '애(愛)'를 최영인의 관소리로 ▲단가 사절가 ▲춘향가 중 속대머리 ▲흥보가 중 박타령 ▲남도민요 中 송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을 이해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은 첼리스트 김근혜와 함께 작곡가들의 특징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김근혜의 ▲J.S Bach - Cello suite No.1 Prelude ▲J.Haydn - Cello concerto No.2 in Dmajor mov.2 Adagio ▲P.I Tchaikovsky - Nocturne for cello in d minor Op.19 no.4 등을 연주 할 예정이다.

모든 콘서트는 잔석 1만 원이며, 선착순 전화 신청으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23-5323)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공간 이름 이윤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전주 시민과 문화 소외계층에게 우리의 희노애락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동시에 치유의 역할을 해주는 음악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치유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언빌리버블 쇼'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문화가 있는 날 '언빌리버블 쇼'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아티스트 버블가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무지개빛 비눗방울, 강아지 풍선, 마술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가득한 상상력과, 어른들에게는 그라운 어린시절의 추억의 놀이를 전달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공연을 선보인다.

어린시절의 꿈이라는 주제로 마술과 버블쇼를 통해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네모난 비눗방울, '무지개빛 비눗방울', '메가별룬', '마술쇼', '그림자쇼' 등을 더해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오감만족형 가족 공연이 될 것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진단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

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7월 20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하우스 콘서트' 선보인다

군산예술의전당이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가 매달 다른 장르의 공연을 제공해 입소문을 타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우스 콘서트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공연으

로 연주자에게는 관객의 호응과 시선을, 관객에게는 연주자의 작은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올해에는 4회(6.30, 7.28, 9.23, 10.27)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공연된다.

지난 6월에는 해외에서 실내악으로 오랜 시간 인정받은 연주팀 '트리오 론 스피리토'의 연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달에는 젊은 두 명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세&박지현 듀오의 공연을 준비하며 무대위를 날릴 예정이다.

오는 9월 공연에는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차세대 비올리스트 이한나의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릴 무대를 꾸민다. 또 10월에는 해금&기타&클라리넷의 이색조합의 공연을 마련해 전통과 크로스 오버를 넘나들며 한국적 서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 볼 수 있으며 티켓예매는 공연 2주 전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입주지원실 12~23개실로 대폭 증가... 상시 추가모집 공고 진행 중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전북콘진원)에서 운영하는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하반기에 센터입주지원 확대 및 신규 시설물 구축을 통해 전라북도 내 콘텐츠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센터의 입주지원실은 기존 12개실에서 23개실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상시 추가모집 공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c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의 지원 자격은 지역 내 콘텐츠 관련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 예비 창업자 모두 가능하며, 예비 창업자의 경우 소정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된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인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 등 창조형 콘텐츠와 실감콘텐츠, 기술 융·복합 콘텐츠, 기능성 콘텐츠

등 혁신형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센터 내 특화공간 신설(미디어콘텐츠 개발자를 위한 1인 라이브스트리밍 부스 및 콘텐츠제작지원실) 등 창업 기반 조성 및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대함에 따라 전북 시민이 쉽게 접근하며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축에도 힘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시설물 대관 및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jc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하반기 센터 입주기업 확대 및 신규 시설물 구축을 통한 시설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의 콘텐츠기업센터들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콘텐츠 육성 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김재훈 기자

인문학특강 '전북 문화 바로 알기'

흔불기념사업회, 23일·30일 방화선·박계호 선자장 만나

흔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의 인문학특강인 '전북문화바로 알기'가 오는 23일과 30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방화선 선자장



박계호 선자장

'전북 문화 바로 알기'는 도내 대학생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우선 접수자 20명을 선정한다. 참가비는 없다. 흔불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최명희문학관·전주부채문화관이 주관하며, 전라북도에서 후원한다.

매년 '우리가 꼭 소문내야 하는 전라북도 이야기'를 주제로 전라북도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알려온 이 강좌는 올해 전북의 대표 전통문화 브랜드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부채를 탐구한다.

이에 따르면 전북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선자장 1인과 전라북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선자장 3인을 비롯해 10여 명의 부채 장인이 활동하고 있다. 23일과 30일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방화선·박계호 선자장을 만난다.

참가자들은 부채에 얽힌 참담 이삼만의 일화가 실린 최명희(1947~1998)의 장편소설 '제마매가'와 전주부채의 상징적 의미

가 상세하게 담길 수 있을 '동그런 바람'을 함께 읽고, 최명희문학관과 부채문화관을 관람한 뒤 23일은 방화선(태극선·방화선 부채연구소 대표) 선자장, 30일은 박계호(합죽선·전주부채연구소 대표) 선자장의

작업실을 찾는다. 작업실에서는 선자장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부채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전주와 부채, 장인정신과 부채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진행은 전주부채문화관 이형미 관장과 고희숙 기획팀장이 맡는다.

한편 방화선 명장의 대를 이은 방화선 선자장은 전통부채 재현과 함께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부채를 제작하고 있으며, 일본·스페인·홍콩·미국·프랑스·호주 등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박인권 명장의 대를 이은 박계호 선자장은 '비밀의 문', '신의', '대박', '봉이 김선달', '월의 누', '관상', '협녀' 등 영화와 드라마에 합죽선이 소개되며, 각 시대에 맞는 부채 알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최명희문학관(063-284-0570)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